

‘언어의 세공사’ 괴롭히는 교정의 악몽

편집자는 ‘언어의 세공사’ 이자 ‘의미의 파수꾼’이다. 그는 거칠고 투박한 말의 원석(原石)을 갈고 닦아 빛나게 한다. 중구난방으로 어지러운 말의 뜻을 감시하고 거기에 계통과 질서를 부여한다. 이렇게 고귀하고 신성한 편집자의 임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정이다.

출판동네에서 교정에 얽힌 야사와 야담 보따리를 풀어보면 아마 몇날며칠 밤을 꼬박 새워도 모자랄 것이다. 《통문관 책방비화》(이경노, 민학회)에는 아동문학가 윤석중(尹石重)에 얽힌 이야기가 나온다. 해방 전 일이다. 어느 신문에 그의 작품이 실렸는데, 식자공이 중(重)자를 동(童)자로 잘못 보고 그대로 인쇄기에 걸었다. 그 후 어느 날 이광수씨가 윤씨를 보고 ‘석동이’ 하고 큰 소리로 부르더라. 그래서 얼마 동안 자신의 호를 ‘석동’으로 썼다는 이야기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이 직접 교정을 본 기록도 있다. 세조 11년(1466)에 발간한 《이학계몽요해》의 첫 권 첫 장 첫 행 위 여백에 ‘교정’ (校正)이란 장방형의 붉은 색 도장이 찍혀 있다. 유신들이 최종적으로 세조의 교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이 책에는 본문의 여러 곳에도 가필·첨삭한 흔적이 남아 있다.

심팔이 엮은 《몽계필담》에는 송선헌 고사가 나온다. 그는 박학한 사람으로 희귀한 책을 좋아했다. 책을 구하는 즉시 스스로 교정을 봤는데, 항상 말하기를 “교정은 참 어렵노라. 마치 청소하는 것과 같은데 한 페이지를 청소하면 다른 페이지에 생겨서 세 번 네 번 교정을 봐도 오자가 있더라”고 했다.

그만큼 교정이 고난도의 작업인 셈이다. 조선 시대에는 심지어 교정에 대한 벌칙 조항까지 정해졌다. “매 한 권 한 자마다 오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불기 30대를 때린다”는 기록이 보인다. 오늘날의 편집자들이야 이런 형벌까지 받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구까지 만들어낸 것을 보면 오죽이나 교정에 시달렸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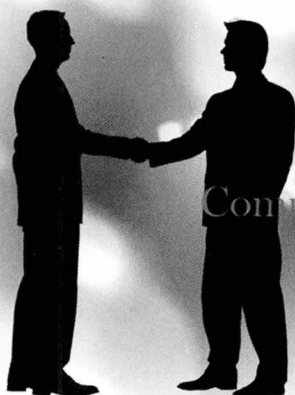
“교정이란 오자와의 숨바꼭질이다. 오자란 항상 뒤늦게 출현해 쓸쓸한 눈물 한 방울을 흘리게 한다. 오자는 지레짐작을 좋아하거나 아집과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에게는 머리카락조차 내밀지 않고 숨어버리지만, 부지런하고 겸손한 사람에게에는 나신(裸身)까지도 드러내 보인다.”

요즘도 책을 읽다보면 심심찮게 오타자를 만나게 된다. 그 유형도 가지가지다. 띄어쓰기 정도야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심지어 저자 이름을 오기한 경우부터 한 단락이 몽탕이로 잘려나간 경우까지 가관이다. 첫 번째 인쇄의 오류도 수정하지도 않은 채 버젓이 판을 거듭하는 물염치도 눈에 띈다.

예나 지금이나 활자화된 글은 반영구적인 생명을 누린다. 오타자나 비문과 악문이 지천으로 널린 글은 마마자국으로 얽은 얼굴처럼 보기 흉하고 민망하다. 군주가 교정을 보는 책을 만드는 학자들처럼 그렇게 삼엄하고 엄숙한 편집자 정신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박천홍 기자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킷로그 / 홍보물 / 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사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

dp design partner darum